

사회 문제
이해하기

쟁점 분석하기

민주적으로
토론하기

논설문
완성하기

4

질문으로 시작하는 토론

01. 사회 문제를 책으로 만나요
02. 갈등 상황 속 핵심 쟁점을 찾아요
03. 토론 논제를 정해요
04. 토론 절차를 이해해요
05. 바람직한 토론 예절을 실천해요
06. 토론 규칙을 지키며 입론해요
07. 근거의 논리성을 메모해요
08. 주장을 검증해요
09. 절차에 맞추어 찬반 토론해요
10. 논설문을 써요
11. 논설문을 고쳐 써요

핵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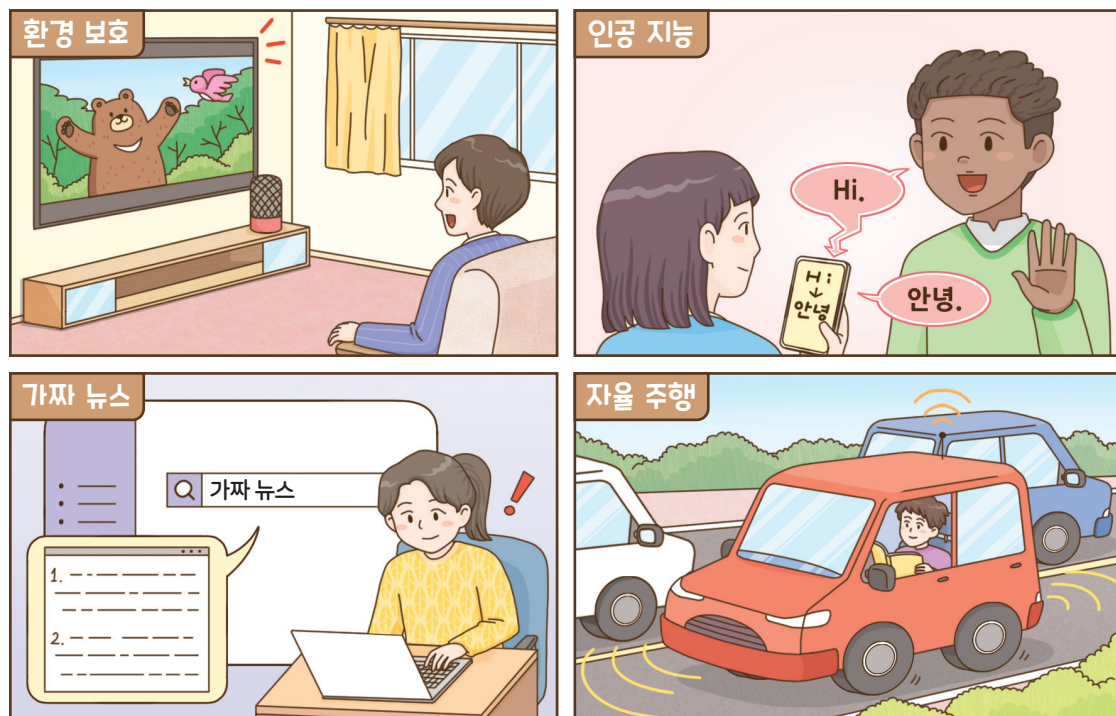
나의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할까요?

사회 문제를 책으로 만나요

학습 목표 사회 문제가 담긴 책을 읽고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 열기

다음 그림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고르고 관련된 책을 찾아봅시다.



	책 이름	출판사	글쓴이
1			
2			
3			

깊게 읽고 탐구하기

다음 글은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 봅시다. 융합하기 | 도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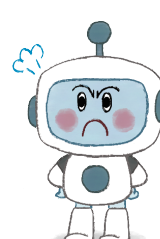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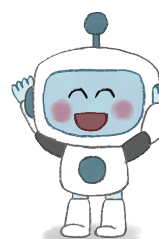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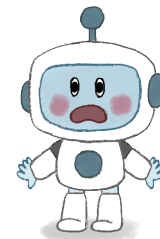
인공 지능 로봇도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영화 <채피>의 인공 지능 로봇 ‘채피’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자 “두려워, 난 살고 싶어.”라고 말해. 이렇게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로봇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대해야 할까, 아니면 사람을 흉내 내는 기계로 대해야 할까?

공상 과학 영화에서 인공 지능 로봇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어떤 때는 공격성을, 또 어떤 때는 친근감을 드러내거든. 이러한 인공 지능 로봇의 반응은 마치 감정을 지닌 것처럼 비치지 않겠어? 섬세하고 정교한 감정 표현, 더 나아가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공 지능 로봇이 개발된다면, 그런 로봇에게 마음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물론 반론을 펼 수도 있어. 먼 훗날 인공 지능 로봇이 놀랍도록 섬세하게 감정을 표현한다 해도 그것은 진짜 감정이 아니라 연기된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이야. 앞서 지적한 인공 지능의 공격성과 친근함 같은 감정 표현은 그저 사람에 의해 설계된 반응이라는 거야.



자기 생각 세우기

1. 앞글에서 인공 지능 로봇에 대한 의견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써 봅시다.

2. 나는 인공 지능 로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봅시다.

나의 생각	
이유	

새로운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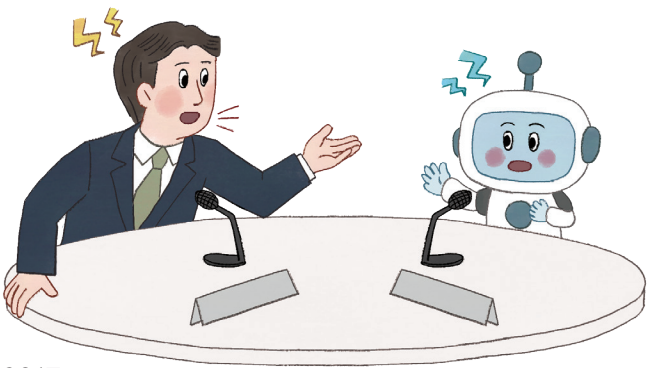
1. 이번 단원을 공부하며 새롭게 생긴 궁금증을 질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예 우리는 인공 지능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 나만의 질문

2. 새로운 질문을 만든 까닭을 짚궁과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인공 지능 로봇, 다시 말해 마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인공 지능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사건이 있었어. 바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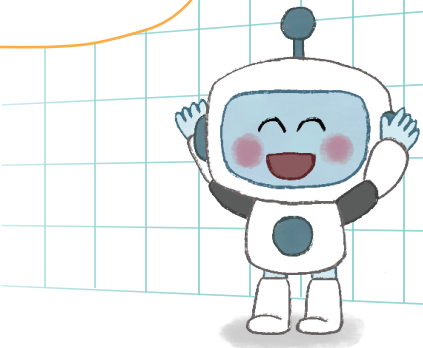
년 유럽연합(EU) 의회에서 로봇 시민법 결의안을 제안한 거야. 이 결의안은 인공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 인간’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어.

하지만 결의안이 로봇에게 사람과 대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건 아니야. 어디까지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적 지위를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앞으로 인공 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인공 지능도 사람처럼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 지능 로봇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볼 수 있을까?

오승현, 『인공지능 좀 아는 10대』



“인공 지능이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다시 읽어 볼까?



- ▶ 뒷글을 읽으며 핵심 낱말에 ○로 표시하고,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어 보아요.
- ▶ 찾은 핵심 낱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번 시간에 배울 탐구 질문을 만들어 보아요.